

# KTX 수서~목포 노선 2015년 말 출발... 하루 1만4000여명 이용할 듯

운영회사 '면허 발급' 수서발 KTX

지분 코레일 41%·공공기금 59%... 정부 "민간 매각 땀 면허취소"  
철도노조 "조건 달았지만 민간 지분 매각 막지 못해 결국 민영화"

27일 국토교통부가 논란 속에 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수서발 KTX 법인은 2015년말부터 수서역을 기점으로 호남선과 경부선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게 된다.

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철도공사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가진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자회사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은 초기 사업비 1600억 가운데 50%는 자본금, 50%는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수서~평택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기존 KTX 노선과 중복된다.

국토부는 수서역 출발 KTX의 요금을 서울역 출발 KTX보다 10% 낮게 책정하고 요금체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차량은 주말기준 18회를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루 평균 승객이 2016년 5만4788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서~부산 노선이 4만722명, 수서~목포 노선이 1만4066명이다.

일일 여객 수요는 2020년에는 5만 6013명, 2025년에는 5만6915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예상 매출액은 4622억원이며 예상 영업손익은 연평균 235억원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초기에 코레일이 과중한 인력을 중심으로 40명으로 회사를 꾸려 나중에는 430명 규모로 키울 예정이다.

기관사, 승무, 본사인력 등 핵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아웃소싱해 인건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내년 1분기에는 기관사 등 필수인력의 수요를 조사하고 열차운행 계획을 수립하며 인력수급 계획을 확정, 신규인력을 채용

방법이다.

2분기에는 공공자금을 유치하고 3분기에는 차량 시운전과 영업 준비계획을 확정하며 4분기에는 선로사용계약 체결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한다. 2015년에는 개통 때까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차량 시운전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인 사업 면허에 신주발행과 지분 양도 때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민간매각할 때 면허를 취소해 공적지분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같은 장치를 민간 지분매각을 막지는 못하고 결국 민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영업수입의 50%를 선로사용료로 철도시설공단에 내게 해 건설부채를 낮출 계획이다. 이는 코레일이 내는 31%보다 19% 포인트나 높다. /연합뉴스



노사정 타협 불발

27일 국회에서 철도사업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사정이 함께 참석해 있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욱 고용노동부 차관, 김재길 한국철도노조 정책실장,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 /연합뉴스

## 철도파업 '복귀율 30%' 싸움

정부 연일 압박 '고사작전' 노조 "중단없는 투쟁"... 이번주가 고비

철도파업이 2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가 발급되고 사측의 최후통첩이 이뤄지면 파업 노조원 업무복귀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노조 집행부가 협의한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같은 노조원 업무복귀를 증가는 파업 사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노조 집행부가 중단없는 파업을 결의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이 하나둘씩 대오를 이탈하면 파업동력이 급격히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도 이런 점을 노린 듯, 연일 노조(원)들을 압박하며 '고사작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이번 철도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인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오후 2시 현재 1030명에 달

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금까지의 전체 복귀인원은 2202명으로 늘어 복귀율이 25%라고 밝혔다.

코레일 집계를 보면 '27일 자정까지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이 있는 뒤 불과 하루(28일 오전 10시 기준) 만에 671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29일 오전 8시 기준 복귀율은 불과 13.3%였다.

역대 파업에 비추어 노조원 복귀율 30%대를 전후로 파업 철폐 등이 이뤄져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파업 4주째를 맞는 내주 초까지의 노조원 업무복귀율이 파업 지속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 복귀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일단 사측과 정

부의 계속된 초강경 카드가 효과를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660명 규모의 대체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파업동력이 급속도로 무너지지 아직은 미지수다. 현재 6600명(75%가량)의 노조원들이 아직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경찰의 대규모 검거작전에도 모두 견제해 파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 28일에 이어 내년 1월 9일에는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1월 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열기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도 선부론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연합뉴스



서울광장 짙은 분노

28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 '면허 발급' 공방...여 "적법한 조치" 야 "명백한 날치기"

여야는 28일 정부가 전날 밤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조치라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면허발급에 대해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하려 다 실패한 철도개혁의 일환"이라며

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면허 발급은 국토부가 기존 방침을 이행한 것이며, 절차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민영화와도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 만큼 철도노조는 의심을 거두고 하루빨리 작업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민은 모두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호소하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한 답변(면허발급)이 언론이 잡든 '불금'(불타는 금요일)에 전격 진행된 것도 교활하고 어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긴급성명에서 "국토부 장관의 버락치기 면허 발급과 한밤중 기습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의 오기

정치, 불통정치의 결과"라며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실체도 없는 유명회사에 영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밤중 날치기 면허발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노조간부 무더기 징계 위화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협박도 모자라 대학살극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꼴"이라며 "면허 발급과 징계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r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릴것입니다.

-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레메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정로 등 시내 주요 거점까지 10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